

## [ 오피니언 ]

## 光日春秋

김정동



요즈음 외국의 문화재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는 아마 근·현대문화재일 것이다. 외국의 신문, 잡지는 '현대 유적발굴'이란 기사를 자주 내고 있다. 거기에 거론되는 것들을 보면, 공장, 굴뚝, 등대, 탑, 기차역, 경마장, 발전소, 정수장, 다리, 교도소, 뒷골목, 적선지대 그리고 군사유적 등이다. 그중 군사유적을 세분해 보면 특공기지, 군부대 터, 군공장 터, 비행장 터, 격납고, 요새, 참호(塹壕), 토지카, 초소, 창고 등이 있다. 이들 유적 찾기에는 학자뿐 아니라 아마추어 일반인도 열을 올리고 있다. '폐허의 미학'이란 그럴듯한 이름까지 갖다 부치고 있다.

서구는 역시 이 분야도 선구적이다. 어떤 면에서 서구사가 산업혁명과 그리고 전쟁사야기에 그런지도 모른다. 지금은 대사 중 전쟁 도발국의 수괴 히틀러, 무슬리니, 그리고 소와 천황 등의 전쟁 유적은 미화되기까지 한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이에 대한 미화가 극대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유적 혹은 군사유적 찾기가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일본의 역사 역시 전쟁의 역사라 이에 대한 관심은 대중적

## 잊혀지는 전쟁의 흔적

고전이 되어 버렸고, 최근에는 도심의 유적지 찾기가 성황이다. 그것은 일종의 살아있는 전쟁역사 찾기가 되는 것이다. 전쟁 문화재 중 하나로 격납고(格納庫)와 업체호(掩体壕)라는 것이 있다. 둘 다 군사 용어인데 이중 업체호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격납고는 비행기, 비행선, 자동차 같은 것을 넣어 두는데 쓰는 창고를 말하고 업체호는 사격에 용이하게 하고 또한 적에 대하여 사수(射手) 등을 엄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엄호(掩壕)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엄호용으로 판호를 엄호라고 한다. 따라서 업체호는 업체호의 준말이 되는 셈이다. 대개 인근에서 동원된 조선인이 했다.

근이 귀할 때마다 철근도 들어가는 등 마는 등이었다. 업체호는 평면한 지면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대부분 만두형이었다. 정면 개구부의 폭 17미터, 길이 15미터, 높이 4미터, 두께 60센티미터 규격이었다. 개구부는 반원형으로 입구 쪽은 넓고 뒤쪽은 좁아지는 깥때기 형이다. 이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흙을 둘글게 쌓아 걸을 만든 다음, 그 위에 가마니를 덮고 원형철근 몇 개를 넣고 콘크리트를 쳐 활지붕(볼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콘크리트가 굳은 후 흙을 굽어내 내부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군용기를 숨기는 것이다. 공사는 대개 인근에서 동원된 조선인이 했다.

업체호는 전쟁 때 실제로 쓰이진 않았다. 만드는 일마 안 되어 8·15 광복을 맞았기 때문이다. 전후 업체호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국방부가 행간 것도 아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냥 콘크리트 더미일 뿐이었다.

다행히 문화재청은 최근 격납고와 업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경남 밀양시 남면 기산리 구 비행장 격납고 2기(등록문화재 206호)와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1기(39호)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금년 초에는 경북지역에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시행됐다. 영천 지역에 영천 비행장 부근 금호읍 일대에서 업체호 20·30여개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22일, 금호읍 소재 업체호 7기를 모두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그 중 1기가 예고 이틀 만인 24일 소유주에 의해 굴착기 등으로 파손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국은 전쟁문화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것은 아무의 눈길도 끌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전쟁의 흔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lt;목원대 교수·문화재 위원&gt;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억

정말 짧은 기간에 참으로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고 명함을 건넸다. 정치 생활이었다. 정치적 행위들이었다. 모 정당의 구청장 후보로 나서기로 마음 먹은 후부터 내 정치 생활이 시작되었다. 약수터에서, 시장통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나누는 행위들을 하면서 나를 알리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그 시간 속에서 따듯한 말을 건네며 격려해 주는 분들만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 명함을 건네는 면전에서 싸늘한 비웃음과 함께 바로 땅바닥에 명함을 버리는 분들도 수없이 접할 수 있었다. 솔직히 좋은 기분일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쾌함에 앞서 안타까움이

통령을 뽑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이들을 우리의 대표로, 일꾼으로 뽑는 과정이다. 그 결과가 우리 일상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작은 모임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보다 더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우리들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가족들의 삶의 조건, 사회를 바꾼다는 사실을 조급이라도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놓고서, 또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뽑히

기고



최진수

우리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A씨. 부나 사회적 지위, 자식교육 대부분의 측면에서 정상에 올라서 좀 여유있게 하산하려는 순간. 웬 날벼락. 중풍이 왔다. 2년째 방안에서 그 화려했던 인생 정상의 모습을 뒤쳐겨 볼 틈도 없이 인고의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돈 버느라고, 자식 뒷바지 하느라고,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날마다 거래처 만나 술, 담배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정말 열심히. 바로 그 순간 네게 이런 일이..." 건강을 돌보지 못해 후회스럽고, 눈물이 난다네"

며지않아 5·31 지방선거이다. 본선에

건강이 과연 개인이나 그 가족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처럼 건강을 시장이나 개인의 지불능력에 맡긴 경우 빈곤이 건강악화를 부르기도 하고 불건강이 빈곤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건강불균형이 바로 그거다. 일찌기 베버리지가 사회 공동의 5적으로 빈곤과 질병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던가?

건강은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이고 나아가 차지단체나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IT 부문을 비롯 일부 하이테크 부문에서 선진국을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정작 60~70년대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시절 방식을 반복하는 개발 국가의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야 한다.

## 정치 생활, 생활 정치

더 크게 자리잡는다. 우리 모두가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행위들의 결과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안타까움은 더 크게 자리난다.

우리는 작은 친목 모임을 하나 만들더라도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는다. 그냥 멋으로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는 것이 아니다. 모임의 회장이나 총무를 잘못 결정해서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거나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지는 경험을 한 두 번씩은 해 봤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의 결과다. 작은 정치적 행위가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뽑고 일꾼을 뽑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크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 활동에는 이상하리만치 소홀하고 냉담하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구청장·시장·대

도록 방관하고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어갈 저력을 바난다 하고 냉소를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잘못된 행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엉터리 대표자가 재정을 엉망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줄줄 새나갈 때, 그 책임이 그 잘못된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책임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거나 뽑히도록 방관했던 우리 모두에게 있다.

오늘도 각종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칠 것이다. 그들이 나눠주는 명함 한 장이라도 잘 살펴 볼 일이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잘 따져 볼 일이다. 명함을 건네는 후보자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골라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前광주시의원·동신대 교수)

## 건강을 돌보겠다는 후보를 찾자

나갈 후보자들이 하나 둘 확정되고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어디 도로를 뽑고, 어디 어디 개발을 하고...때론 재탕·상탕....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그러나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후보는 찾기 쉽지 않다. 시민들의 관심도 오십 보백보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우리 집 앞길을 내달라 주장해 해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 무엇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크게 들리지 않다.

그동안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당연히 이런 것은 국가가 SOC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 왔다.

건강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왔고 국가의 책임을 덜기 위해 의료보험을 도입했던 게 고작이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새로운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투자 대 효과 즉 경제학적 기준이다. 이는 맹점이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의 건강문제를 돌보라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건강은 휴머니즘이다. 이런 인도주의 광주·전남을 성취하기 위한 초석을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민선 4기를 향하여 뛰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러한 건강한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광주·전남이 온 지구인들이나 세계 보건기구가 우리를 보는 최고의 '건강·안전 도시'가 될 날을 꿈꾸 본다.

<광주·전남 건강포럼 대표·전남대외 예방의학과 교수>

## 맞벌이 가정 집주소 소방서에 미리 등록하면 어떨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최근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 아이들이 모두 숨진 사건도 이런 상황에서 빛이 진 핵심이다. 부모들도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부모한테 먼저 전화하거나 112·119 등에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소방서나 파출소는 신고한 집의 위치를 알아내느라 적잖은 시

간을 소비한다고 한다. 다급해진 아이들이 정확한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나 노약자만 가정에 있는 집에서는 가까운 소방서나 파출소에 집주소와 정확한 위치를 미리 등록해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사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부모들도安心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라·목포시 복민동

해주면 안되나. 또 경찰공무원 시험에 마치 응시 할 곳이 없는 지원자들이 대개 물려 경쟁률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언론이 경찰(순경)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존중해 줄 때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에 큰 어려움과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앞으로는 바꿔 표현해줄길 바란다.

▲이선희·광주시 서구 마륵동

## '순경' 표현보다는 '경찰' 공무원이 적절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 “후회할 것”발언 对韓 선전포고인가

참으로 못 말릴 이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강경화에 신경이 곤두선 것 같다"고 지적한 것을 아무리 감안 한다 해도 이는 한일 관계에 오래 기억될 막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5일 노대통령의 독도담화 발표 이후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만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가 이모양이 된 책임이 온전히 일본측에 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 초기 경솔했던 대일외교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한다. 특히 노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는 나와 닮았다" "내 임기중 과거사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국정정서와 동떨어진 발언들을 했다.

어제 외교부는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은 실천하기 힘든 조치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말 앞서고 실천이 없다면 일본은 우리를 영원히 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중국으로 간 일자리 21만개와 青年 실업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국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과 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중국으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5천여개에 달하며 이로인해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투자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 고용상황이 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쓰아놓고도 국내투자를 꺼리는 이유들이다.

기업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대거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은 경제기반 불평과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창 나이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청년 구직 단념자'가 지난 12만명을 넘어서었다. 청년실업난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때문이다. 임금이 싸고 노사분규도 적은데다 각종 세제 감면 등 중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세계 각국의 기업을 빨아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조업 부문이 주로 옮겨갔으나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구개발부문까지 이전dale에 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경직된 노사관계에 기업들을 옮기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들을 불잡을 수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투명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고도화 기반 조성과 클러스터화, 세계적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기업 육성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 것도 필수적이다.

## 無等鼓

"일본이 자동차에서 독자 발명한 것은 거울을 집어넣는 장치 정도다" "자동차 회사들이 잘난 척 하지만 남 흉내내는 게 고작이다"

6년 연속 최고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우며 꾸준히 질주를 하고 있는 오쿠다 히로시(奥田硕)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다.

오쿠다 회장의 이 말은 세계자동차업계의 정상을 독주하는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차기 회장으로서는 드물게 드러난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품질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따라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빅 5'로 성장하기 위해 탄탄대로를 달려왔다. 그래서 미국 및 일본 자동차업체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로서는 제품에 꺾여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현대차에 대해 오히려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국제 환경과 국가 경제적 의미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현대차 사태의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오쿠다 회장의 엄살이 환죽하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볼 때다.

/정재현 사회2부장 jhjh@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p